



# 내가 왜요?

- \* 글 : 장세련
- \* 그림 : 유재엽
- \* 펴낸곳 : 단비어린이
- \* 정가 : 12,000원
- \* 분량 : 128쪽
- \* 대상 : 초등학교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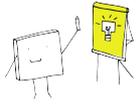
## · 책 소개

아이들의 빛나는 동심이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 주고 싶은 어른의 마음

아이들의 눈에 어른들의 생각, 어른들의 세계는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많다. 다른 애들도 잘못했는데 왜 나만 혼나는 건지, 왜 남자는 집안일을 돕지 않는지, 아빠는 왜 새엄마를 데리고 왔는지, 엄마는 왜 나를 두고 떠났는지…….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은 입을 꼭 닫고 숨겨도 어른들에게 금방 들린다. 장세련 작가는 아이들의 그런 동심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 주고 싶은 마음을 작품 속 아이와 어른의 관계로 보여 준다. 자기가 버리지 않은 쓰레기까지 치워야 해 억울해하는 예후의 마음을 알고는 몰래 선행 제보를 하여 상을 받도록 해 준 문구점 사장님,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당당한 몽골인 엄마와 그런 엄마를 인정하고 응원하는 선생님, 새엄마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수인이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는 새엄마, 다른 사람들에게 배풀고 싶어 하는 대용이의 선의가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엄마의 마음, 떠난 엄마를 기다리는 대한이를 위해 운동회 날 엄마 그림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 준 선생님의 마음까지. 아이들은 상처받으며 성장하지만, 뒤에 항상 자신들을 보듬어 줄 어른들이 있다는 걸 알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다. 이 책은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고 싶은 마음을 담은 작품들이다.

## · 주요 독후활동

<b>내가 왜요?</b>	책 속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왜요?</li> <li>· 네 잘못이 아니야</li> <li>· 네가 선생님이다</li> <li>· 엄마 닳았지</li> <li>· 엄마를 찾았다, 펄럭이는 엄마</li> </ul>
	토론 논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후는 상을 반납해야 한다 찬성vs반대</li> </ul>
	창의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뒷이야기 상상하기</li> </ul>



## 독서 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 표지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 (1~2) 《내가 왜요?》의 책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표지의 그림은 어떤 상황을 표현한 것 같나요?
2. 표지의 두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두 사람의 마음을 각각 적어 보세요.

※ (3~5) 《내가 왜요?》 뒤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상이라니, 그럴 리가 없었다.

상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는데, 무슨 일이지?

“내, 내가 왜요?”

예후는 겁이 났다.

특하면 꾸중을 듣는 터에 방송실이라니.

‘아이 씨, 밤에 오줌 싼 거 cctv에 찍힌 거 아냐?’

방송실에서 공개 망신 주려나?’

문구점 담벼락에 오줌을 누 일이 자꾸 켕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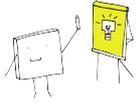
“또 ‘내가 왜요?’니? 그 말버릇 고치랬지?”

“그, 그래도…… 무슨 일인데요?”

“가 보면 알아!”

쭈뼛거리는 예후에게 선생님이 가볍게 짜증을 냈다.

3. 선생님은 예후에게 어디에 가 보라고 했나요?
4. 예후는 어떤 말버릇이 있나요?
5. 예후는 왜 방송실에 가야 했을까요? 방송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지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 독서 후 어휘력 쑥쑥 키우기

※ 책에 나오는 어휘를 익혀봅시다.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 “쓰레기 버리는 녀석을 잡으려고 몇날 며칠을 ① 벌렀는지 모른다.”

- 아주머니가 사진을 찍으며 ②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 풀들은 한결 ③ 생기를 띠고 있었다.
- ④ 이죽거린 한주가 웃음을 실실 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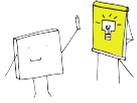
1. (가)의 밑줄 친 각 낱말은 어떤 뜻으로 쓰였을지 알맞은 뜻과 연결해보세요.

- |          |   |   |  |
|----------|---|---|--|
| ① 버르다    | • | • | ㉠ 시치미를 뚝 떼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태도가 있다.   |
| ② 천연덕스럽다 | • | • | ㉡ 자꾸 입살스럽게 지껄이며 짓궂게 빈정거린다.             |
| ③ 생기     | • | • | ㉢ 어떤 일을 이루려고 마음속으로 준비를 단단히 하고 기회를 엿보다. |
| ④ 이죽거리다  | • | • | ㉣ 싱싱하고 힘찬 기운.                          |

2. 일곱 개의 단편 중 가장 재미있게 읽은 단편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이야기의 제목은 이야기를 잘 나타낼 수 있게 짓습니다. 이야기를 읽고 싶게 만들 수 있도록 재미있거나, 궁금증을 자아내게 짓기도 하지요. 《내가 왜요?》를 읽으며 각 이야기의 제목을 다시 붙여보세요.

이야기 제목	내가 붙인 제목
1. 내가 왜요?	
2. 네 잘못이 아니야	
3. 네가 선생님이다	
4. 엄마 닳았지	
5. 엄마를 찾았다	
6. 오지라퍼 대용이	
7. 펠릭이는 엄마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① 네 잘못이 아니야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자신을 두둔하는 진형이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이 너무 답답했다. 친구들에게 한마디 변명조차 하지 못한 것도 바보 같았다.

텅 빈 운동장을 둘러보았다. 운동장이 마치 사막처럼 삭막하고 커 보였다. 늘 좁게 느껴졌던 운동장이 그렇게 넓어 보인 건 처음이었다.

(나) 영훈이는 축구공에 머리를 세게 맞은 듯했다. 터덜거리며 걸으면서도 기분이 얼떨떨했다. 그렇지만 다행이었다. 아주머니가 돌멩이에 맞은 것이 아니라니 마음이 놓였다.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영훈이는 눈을 살짝 감았다가 떴다.

‘축구도 그래. 내 잘못이 아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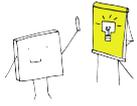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아직도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다. 장미 가시에 긁힌 손등이 몹시 따끔거렸다. 손가락이 욱신거렸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뛰어가던 진형이가 생각났다.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다.

1. (가)에서 영훈이는 자기를 도와주는 진형이를 위해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나요?
2. (나)에서 영훈이는 왜 가시투성이 장미 화단에 숨어 있었나요?
3. 나에게 (가)와 (나)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요? 영훈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적어 보세요.

(가)	(나)

4. 다음 날, 영훈이는 진형이를 만나 뭐라고 말했을까요? 영훈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진형이에게 할 말을 적어 보세요.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② 네가 선생님이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얼마나 집엘 가고 싶었으면 시곗바늘을 돌려 놓을 생각을 했을까 싶다가도 선생님을 속인 민지가 괘씸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아찔했다. 저 높은 데 걸린 시곗바늘을 돌릴 생각을 하다니, 조마조마한 마음에 실수로 발을 헛디디기라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 서였다.

아까까지만 해도 교실 깊숙이까지 비쳐 들던 봄 햇살은 슬그머니 창가 쪽으로 물러났다. 햇살도 선생님의 눈치를 보는 듯했다.

‘어찌지? 민지를 어째야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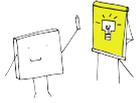
선생님은 고민에 빠졌다.

(나) “그것도 죄송해요. 교실 밖에서 기다리던 제 동생 민수가 그랬거든요. 선생님이 나가 시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바늘이 안 움직였어요. 진짜 3시 30분이 돼야 보내 주실까 봐…….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벌써 민수가 시계를 잡는 중이어서…… 말릴 수도 없었어요. 민수가 놀라서 진짜 다칠까 봐 겁났어요.”

“그랬구나……. 민지야, 네가 선생님이다.”

선생님은 눈물을 훔치며 민지의 독서기록장에 도장을 찍었다. ‘최고!’ 도장이었다.

1. (가)에서 선생님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요?
2. (나)에서 선생님이 민지에게 “네가 선생님이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선생님이 다시 민지를 학교에 남기고, 혼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③ 엄마 닮았지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다른 나라에선 안 이릅니다. 한국은 왜 그러니까?”

“무, 무슨 소리야?”

“한국 생활 아직도 모르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셋이고요. 여자 혼자 집안일 다 하는 거 너무 억울합니다!”

“일래 집안일은 여자가…….”

“……!”

아빠에게 잡힌 채 엄마가 획, 고개를 돌렸다. 아빠를 쏘아보는 엄마의 눈길에서 불이 뿜어져 나올 것 같았다.

“어어어? 이러지 마, 더 다쳐!”

(중략)

큰일이 날까 가슴이 콩닥거리면서도 혜진이는 속이 후련했다. 이상하게도 씩씩한 엄마가 자랑스러웠다. 과연 칭기즈칸의 후예다웠다.

(나)

“네가 아무리 놀려도 몽골에 대해서는 나만큼 아는 애도 없을걸. 나는 너보다 적어도 한 가지는 더 안다는 거야. 너! 몽골 얼마나 알아?”

야무지게 쏘아붙인 혜진이가 차갑게 웃었다.

1. 혜진이와 엄마는 어떤 점이 닮았나요?

2. 혜진이와 엄마는 무엇을 바꾸고 싶어 하나요?

혜진이가 바꾸고 싶은 것	엄마가 바꾸고 싶은 것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④ 엄마를 찾았다, 펠릭이는 엄마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슴이 먹먹했다. 기분도 막막했다. 이 나무가 엄마라니, 말도 없는 나무가 어떻게 엄마야.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화가 치밀었다.

가만히 있으려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눈 가득 눈물이 고였다. 깜빡이면 금방이라도 눈물이 툭 떨어질 것만 같았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참았던 눈물이 결국 떨어졌다.

“엄마!”

나무에겐지 새엄마에겐지 모르는 채 엄마를 불렀다. 저도 놀랄 만큼 큰 소리였다.

그리고는 새엄마의 품에 쓰러지듯 안겼다.

“.....”

새엄마가 말없이 수인이의 등을 토닥거렸다.

(나) 일하는 아저씨는 능숙하게 만국기를 걸었다. 하늘은 잠깐 사이에 만국기로 채워졌다. 당장 운동회를 열어도 될 것 같았다.

대한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엄마의 얼굴이 잘 보였다. 또 눈물이 나려고 했다.

‘꼭 일 등할 거야.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꿀꺽, 눈물을 삼키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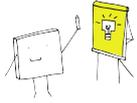
바람이 살랑 불었다. 엄마의 얼굴이 펠릭거렸다.

1. 수인리와 새엄마가 간 곳은 어디인가요?

2. 대한이는 만국기에 무엇을 그렸나요? 그 그림을 그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엄마를 그리워하는 수인리와 대한이가 만나 서로를 위로하면 어떨까요? 둘의 대화를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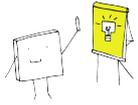
수인리가 대한이에게	대한이가 수인리에게



## 독서 후 토론&논술\_ 예후는 상을 반납해야 한다! 찬성 vs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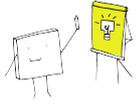
※ <내가 왜요?>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 예후가 상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스스로 분리수거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또 화가 나서 문구사 벽에 오줌을 누기도 했지요. 이런 예후가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요? 예후는 상을 반납해야 할지, 그냥 받아도 될지를 놓고 각각 주장의 근거를 적어 보세요.

예후는 상을 반납해야 한다! 찬성 vs 반대	
<찬성 측 중심 생각> 예후는 상을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상을 반납해야 한다.	<반대 측 중심 생각> 분리수거를 한 건 맞으므로 상을 받아도 된다.



## 독서 후 창의융합\_ ① 뒷이야기 상상하기

※ <오지라퍼 대용이>의 대용이는 뭐든 퍼주기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이런 대용이는 어떤 어른이 될까요? 어른이 된 대용이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어떤 모습인지 설명해 주세요.



## 정답과 해설(예시 답안)

2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시 답안) 한 아이가 문구사 아주머니에게 혼나는 상황 같다.</li> <li>(예시 답안) ‘앗 잘못 걸렸다.’ / ‘재가 이걸 버린 거 아닐까?’</li> <li>방송실에 가 보라고 했다.</li> <li>(예시 답안) “내가 왜요?”라고 대답하는 버릇이 있다.</li> <li>(예시 답안) 상상도 못한 상장을 받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상 덕분에 예후의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li> </ol>																
3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 ②-㉡ / ③-㉢ / ④-㉣</li> <li>(예시 답안) &lt;네 잘못이 아니야&gt;가 가장 재미있었다. 나도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에서 진 영훈이의 마음이 잘 이해가 되었기 때문이다.</li> <li> <table border="1" data-bbox="268 775 1243 1106"> <thead> <tr> <th>이야기 제목</th> <th>내가 붙인 제목</th> </tr> </thead> <tbody> <tr> <td>1. 내가 왜요?</td> <td>⇒ 예시 답안) 두근두근 상장</td> </tr> <tr> <td>2. 네 잘못이 아니야</td> <td>⇒ 예시 답안) 용기를 내!</td> </tr> <tr> <td>3. 네가 선생님이다</td> <td>⇒ 예시 답안) 오해해서 미안해</td> </tr> <tr> <td>4. 엄마 닳았지</td> <td>⇒ 예시 답안) 엄마랑 똑같지?</td> </tr> <tr> <td>5. 엄마를 찾았다</td> <td>⇒ 예시 답안) 엄마 나무</td> </tr> <tr> <td>6. 오지라퍼 대용이</td> <td>⇒ 예시 답안) 내가 다 할게!</td> </tr> <tr> <td>7. 펠릭이는 엄마</td> <td>⇒ 예시 답안) 지켜봐 줘</td> </tr> </tbody> </table> </li> </ol>	이야기 제목	내가 붙인 제목	1. 내가 왜요?	⇒ 예시 답안) 두근두근 상장	2. 네 잘못이 아니야	⇒ 예시 답안) 용기를 내!	3. 네가 선생님이다	⇒ 예시 답안) 오해해서 미안해	4. 엄마 닳았지	⇒ 예시 답안) 엄마랑 똑같지?	5. 엄마를 찾았다	⇒ 예시 답안) 엄마 나무	6. 오지라퍼 대용이	⇒ 예시 답안) 내가 다 할게!	7. 펠릭이는 엄마	⇒ 예시 답안) 지켜봐 줘
이야기 제목	내가 붙인 제목																
1. 내가 왜요?	⇒ 예시 답안) 두근두근 상장																
2. 네 잘못이 아니야	⇒ 예시 답안) 용기를 내!																
3. 네가 선생님이다	⇒ 예시 답안) 오해해서 미안해																
4. 엄마 닳았지	⇒ 예시 답안) 엄마랑 똑같지?																
5. 엄마를 찾았다	⇒ 예시 답안) 엄마 나무																
6. 오지라퍼 대용이	⇒ 예시 답안) 내가 다 할게!																
7. 펠릭이는 엄마	⇒ 예시 답안) 지켜봐 줘																
4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시 답안) 자기가 잘못해서 축구에서 진 것만 같았기 때문에 죄책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li> <li>아주머니가 자기가 찬 돌에 맞아서 쓰러진 줄 알고 무서워서 숨어 있었다.</li> <li> <table border="1" data-bbox="280 1256 1295 1447"> <thead> <tr> <th>(가)</th> <th>(나)</th> </tr> </thead> <tbody> <tr> <td>⇒ (예시 답안) 축구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진형이에게 고마워하며 다른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거다.</td> <td>⇒ (예시 답안) 내가 찬 돌맹이에 아주머니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알 수 없지만 우선 아주머니에게 달려가 상태를 볼 거다.</td> </tr> </tbody> </table> </li> <li>(예시 답안) 진형아, 어제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 내가 내 편을 들어 주는데도 내 잘못인 것만 같아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 미안해.</li> </ol>	(가)	(나)	⇒ (예시 답안) 축구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진형이에게 고마워하며 다른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거다.	⇒ (예시 답안) 내가 찬 돌맹이에 아주머니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알 수 없지만 우선 아주머니에게 달려가 상태를 볼 거다.												
(가)	(나)																
⇒ (예시 답안) 축구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진형이에게 고마워하며 다른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거다.	⇒ (예시 답안) 내가 찬 돌맹이에 아주머니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알 수 없지만 우선 아주머니에게 달려가 상태를 볼 거다.																
5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시 답안) 민지가 껄뽀하기도 하고,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을지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기도 해서 민지를 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li> <li>(예시 답안) 자기의 잘못을 사과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민지에게 배울 점이 많아서 선생님이라고 한 것 같다.</li> <li>(예시 답안) 민지는 아무 말 없이 남아서 숙제를 했을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민지가 남겨 놓은 반성문을 보고 선생님은 민지를 혼낸 걸 후회했을 것 같다.</li> </ol>																
6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시 답안) 부당한 일을 참지 않고, 맞서 싸우는 점이 닳았다.</li> <li></li> </ol>																

	<table border="1"> <tr> <th>혜진이 바꾸고 싶은 것</th> <th>엄마가 바꾸고 싶은 것</th> </tr> <tr> <td>⇒ (예시 답안) ‘다문화 가정’을 놀리는 아이들.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가정이 아닌 가정은 다르다는 편견을 없애고 싶어 한다.</td> <td>⇒ (예시 답안)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집안일을 더 해야 하고, 아이를 돌보는 건 엄마의 몫이라는 사고를 바꾸고 싶어 한다.</td> </tr> </table>	혜진이 바꾸고 싶은 것	엄마가 바꾸고 싶은 것	⇒ (예시 답안) ‘다문화 가정’을 놀리는 아이들.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가정이 아닌 가정은 다르다는 편견을 없애고 싶어 한다.	⇒ (예시 답안)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집안일을 더 해야 하고, 아이를 돌보는 건 엄마의 몫이라는 사고를 바꾸고 싶어 한다.
혜진이 바꾸고 싶은 것	엄마가 바꾸고 싶은 것				
⇒ (예시 답안) ‘다문화 가정’을 놀리는 아이들.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가정이 아닌 가정은 다르다는 편견을 없애고 싶어 한다.	⇒ (예시 답안)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집안일을 더 해야 하고, 아이를 돌보는 건 엄마의 몫이라는 사고를 바꾸고 싶어 한다.				
7쪽	<p>1. (예시 답안) 수인이를 낳아 준 엄마의 무덤. 2. (예시 답안) 엄마의 얼굴, 엄마의 얼굴이 하늘에서 펼쳐지면 엄마가 자기를 보고 있는 것만 같아서. 3.</p> <table border="1"> <tr> <th>수인이가 대한이에게</th> <th>대한이가 수인이에게</th> </tr> <tr> <td>⇒ (예시 답안) 대한아, 너도 엄마가 많이 그리피지? 엄마도 네가 그리울 거야. 꼭 너희 엄마가 돌아왔으면 좋겠다.</td> <td>⇒ (예시 답안) 수인아, 너도 돌아가신 엄마가 많이 그리피지? 그래도 네 곁에 좋은 새엄마가 있어 다행이야. 우리 힘내자!</td> </tr> </table>	수인이가 대한이에게	대한이가 수인이에게	⇒ (예시 답안) 대한아, 너도 엄마가 많이 그리피지? 엄마도 네가 그리울 거야. 꼭 너희 엄마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 (예시 답안) 수인아, 너도 돌아가신 엄마가 많이 그리피지? 그래도 네 곁에 좋은 새엄마가 있어 다행이야. 우리 힘내자!
수인이가 대한이에게	대한이가 수인이에게				
⇒ (예시 답안) 대한아, 너도 엄마가 많이 그리피지? 엄마도 네가 그리울 거야. 꼭 너희 엄마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 (예시 답안) 수인아, 너도 돌아가신 엄마가 많이 그리피지? 그래도 네 곁에 좋은 새엄마가 있어 다행이야. 우리 힘내자!				
8쪽	<p>1. &lt;찬성 측 근거&gt; 스스로 쓰레기를 치운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문구사 벽에 오줌을 싼 건 범죄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아이에게 상을 줄 수는 없다. 지금 이런 모든 사실은 예후만 알고 있으므로 예후 스스로 반성하고 상장과 상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lt;반대 측 근거&gt; 자기가 버리지 않은 쓰레기까지 예후가 분리수거를 한 것은 맞다. 그러므로 상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뒤로 예후가 한 행동은 잘못되었다. 하지만 상을 받은 뒤로 예후의 행동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상은 꼭 잘해서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격려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예후의 행동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상을 줘도 된다고 생각한다.</p>				
9쪽	<p>⇒ (가이드) 대용이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대용이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그리지 않았더라도 인정해 주세요.</p> <p>⇒ (예시 답안) 엄마의 직업처럼 대용이도 사회복지사가 되어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을 뿌듯하게 여긴다.</p> <p>⇒ (예시 답안) 너무 많은 것을 퍼 주느라 대용이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다. 하지만 대용이는 늘 기쁘게 이웃들을 돕는다.</p>				